

 한국농어촌공사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농촌개발처 농촌관리부 손명훈부장(061-338-5441) / 제공일: 2021. 11. 30 (총 2매/사진자료1매)		

농어촌공사 한국유니버설디자인 대상 공공기관부문 수상

- 성별, 나이, 장애유무에 관계없는 차별받지 않는 농산어촌 생활환경 조성
- 공공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로 유니버설 디자인 정착에 기여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농산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「2021년 한국유니버설 디자인 대상」에서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.

- 「2021년 한국유니버설디자인 대상」은 (사)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최·주관하여, 지난 2019년부터 신체·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* 개념을 적용한 각 7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다.

*유니버설 디자인 : 성별, 연령, 국적, 문화적 배경,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을 만드는 디자인

- 公社는 그동안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리즈 발간, 공공디자인 제도 운영,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전 참여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정착시키고 확대하는데 노력해 왔으며, 이번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.

□ 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디자인 개념도입을 통해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함으로써 공공건축분야에서 공간효율, 주민행복,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다.

- 2020년에 제작한 가이드라인 설계편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바탕으로 농산어촌만의 정체성 확립이 가능한 설계원칙을 제시하며 시설물 용도별, 시설물 내·외부 공간별 적용방안 등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.
- 2021년에 제작한 가이드라인 시공편에서는 설계편에 이어 사례 위주의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시공법을 제시해 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 준수가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.

* **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:** 지역개발에 특화된 설계·시공사례를 제시하고 시설물 적정면적, 예상공사비 등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가능 한 자료

'20년 총론 및 설계편 → '21년 시공편 제작 → '22년 시설물편 제작



- 또한, 공공기관 최초로 내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농산어촌 공공 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해, 공공건축 기획이 예정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의 다양하고 편리한 공간구성을 적용시켜 오고있다.
 - 이 외에도 농산어촌의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등 농업·농촌 공간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지난 7월 「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」에서 공사 시행지구 ‘의성 고운마을’이 학회장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.
- 김인식 사장은 “사회의 각 분야가 다양화, 다원화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, 이를 농산어촌 생활환경에 조성시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” 며 “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산어촌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” 고 말했다.

□ 관련 사진



한국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수상 사진



한국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상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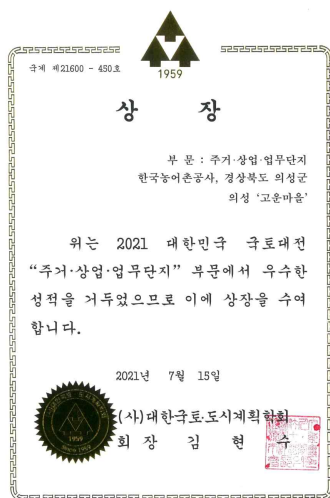


장애물(단차)없는 보행환경



개방형 쉼터공간

▲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'청양 비봉마을'



▲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우수사례 학회장상 수상 '의성 고운마을'